

어떤 지금은 안돼요

텔 레비전을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코메디 물이 많이 방영되고 있는데 우리 주 위에는 특히 부부간의 성 문제에서 코메디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는 웃지 못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

남편은 섹스를 하고 싶어하는데 반하여 부인은 남편이 섹스를 너무 자주 요구한다고 느낄때 그를 섹스광으로 취급한다. 아내는 항상 말하는 것처럼 머리가 아프다든지 기운 이 없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남편은 아내의 성적 반응이 부족한데 대하여 항상 불만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이야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부간의 성행위 빈도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부부 각 자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서로 터놓고 이 야기를 할 수만 있다면 성교의 횟수에 대해서는 양쪽이 조금만 양보하면 큰 문제가 아니 라는 것이다.

서양 속담에 "use it or loose it"이라는 말이 있듯이 쓰면 쓸수록 단련이 되고 좋아 지는 데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쓰지 않고 내버려두면 오히려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 예로 60세 이상 되는 남자가 성생활을 안하고 수개월이 지나면 아예 발 기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을 막론하고 섹스 문제로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부부는 없 다. 금실이 좋은 부부일지라도 결혼 후 불과 몇 년이 안되어 애무의 감정이나 열정이 다 식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아이들 몇 명이 생기면 아내는 자녀들에 매달려 남편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연구가들은 성적인 욕구가 결혼 후 3년만에 반으로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 다. 부부들의 반 이상이 성교 횟수를 놓고 다툰다고 한다. 또,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아 화가 나서 바람을 피우다 혼외정사로 법정 문제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성병에 걸려서 무척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상대방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귀찮다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다.

몇 년 전 미국의 칼럼리스트인 랜 앤더스는 여자들에게 “애정 있는 포옹과 섹스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느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통계 조사한 바 있다. 조사에 응한 9만 명의 응답자들 중에서 72%가 섹스보다 포옹을 더 좋아한다는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 발표가 있자 곧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어떤 여성들은 랜 앤더스에게 자기네들은 남편과 더 자주 성 관계를 갖고 싶어한다는 정 반대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그녀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성적 불만은 이제 시작하나다 하고 생각하는데 남편들이 먼저 사정하고 끝내 버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여성들은 남성들이 너무 자주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요구한다고 불평하는 반면에 어떤 남성들은 성 관계를 한다고 닳아 없어지지도 않는데도 여자 측에서 자주 응해주지도 않고 심한 경우에는 섹스를 무기화 한다고 불평한다.

남성과 여성은 성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이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섹스가 육체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여성은 감정적인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성행위의 문제는 서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혼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부인이었던 여자는 성행위의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놓고 정해진 날 이후에는 절대로 접근을 엄금한다고 불평이었고 또 다른 어떤 부인은 남편이 전회는 전혀 하지 않고 아내의 성감대가 어디인지도 모르며 닭처럼 잠시 올라왔다가 금방 사정하고 내려가서는 깊은 잠에 빠진다고 불평했다.

건강한 성은 이성간에 사랑을 전제로 공포와 갈등을 최소한 줄인 상태에서 충분한 전회로 두 사람이 흥분을 느낀 후 성기 결합이 이루어지며 서로 오르가즘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로 의견일치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으나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행복한 부부생활을 누릴 수 있게 서로 노력해야 한다. **PPFK**



차영일 비뇨기과 원장